석방!

평화시위참가자 볼로트나야 3, 러시아

"볼로트나야 광장에서 푸틴의 대통령 취임에 반대한 이유로 체포된 3명 중 블라디미르와 미하일이 풀려났습니다."

감형!

인권옹호자 툰 아웅 박사, 미얀마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앰네스티의 여러 지부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 담긴 우려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의 답장에서

석방!

주거권 활동가 욤 보파, 캄보디아

"저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편지를 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기자 에스킨더 네가, 에티오피아

"지금 당장 변화를 볼 수 없겠지만, 이는 시간 문제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세요."

– 에스킨더 네가의 아내, 세르카렘 파실

2013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에

143개국 수십만명이 참여해 2,373,422통의

탄원편지와 연대편지를 보냈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편지쓰기 마라톤

2014

amnesty.or.kr/letter2014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or.kr/letter2014

2014 편지쓰기마라톤

편지 한통의 기적

WRITE FOR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 편지쓰기마라톤 패키지는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14 편지쓰기마라톤

편지 한통의 기적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이하르 치하니우크, 벨라루스

"제가 용기를 잃는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보내준 편지를 읽으며 계속 나아갈 힘을 얻을것입니다."

고문생존자 미리암 로페즈, 멕시코

"멕시코 정부는 제가 혼자일 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에 멕시코 정부가 큰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WRITE FOR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2014년에도 편지 한 통으로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죽음을 각오한 임신 음콘도 여성들, 남아프리카공화국

Woman and Girls in Mkhondo,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동쪽, 음콘도(Mkhondo) 지역에서 **'임신'은 죽음을 각오한 여정**입니다.

임신한 여성들은 필수적인 보건 진료를 받지 못해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임신 초기 단계에서부터 건강 관리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 진료소로 가는 대중교통이 안전하지 않을뿐더러 비쌉니다. 또, 많은 여성이 산모가 겪을 수 있는 건강 문제나 초기 임산부 검진 혜택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한편, 숙련된 의료진 및 의료시설이 부족해,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급차가 극도로 부족하여 임신한 여성들은 응급상황 중에도 진료소에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음콘도 지역 여성들을 위해 지금 편지를 써주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방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서비스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을 인정하고, 산모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여성들을 위한 더 나은 건강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고려하라.

* 탄원엽서의 영문편지는 배경정보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웹사이트 개설로 채찍질 1,000대 실형 10년 벌금 3억 선고 라이프 바다위, 사우디아라비아

Raif Badawi, Saudi Arabia

2012년 6월 17일, 라이프 바다위는 사회와 정치, 종교에 대해 논쟁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안 리버럴스(Saudi Arabian Liberals)'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2014년 5월 7일, 정보기술법을 위반하고 이슬람교를 모독한 혐의로 태형 1,000대, 벌금 약 2억 9천만 원, 10년간 여행금지, 미디어에 의견개진 금지, 그리고 실형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평화적인 시위대를 구속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해왔습니다.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토론을 감시하고,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하거나 감시하는 등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습니다.

라이프 바다위를 위해 지금 편지를 써주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은 라이프 바다위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양심수로 고려하여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하라. 라이프 바다위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와 판결을 파기하라. 당국은 태형 집행을 중단하라.

* 탄원엽서의 영문편지는 배경정보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독가스 유출로 인한 30년의 고통 보팔 주민들, 인도

Bhopal Communities, India

1984년 12월 2일 밤, 한 제초제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스 유출은 3일간 멈추지 않았고,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기가 되어버린 유독가스**를 견디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호흡기 질환, 암과 심장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유산과 기형아를 출산하는 등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오염된 지역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염된 공장 부지 근처에 살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정화되지 않은 상수도에서 나온 물을 마셔왔고, 아이들은 오염된 지역 근처에서 오염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와 공장 소유주인 유니언카바이드(Union Carbide)와 모기업 다우케미컬은 지금까지 가스누출에 대한 형사혐의를 요리조리 피해왔습니다.

보팔 참사 생존자와 피해자들을 위해 지금 편지를 써주세요!

인도정부는 유니언카바이드 공장 부지를 가능한 빨리 정화하고, 가스유출과 진행 중인 오염에 대해 유니언카바이드와 모기업인 다우케미컬의 책임을 물어라.

* 탄원엽서의 영문편지는 배경정보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키리크스에 정부의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35년 형 선고 첼시 매닝*, 미국

Chelsea Manning, USA

* 브래들리 매닝으로 알려졌으며, 재판 후 자신의 성 정체성은 여성이고, 성전환을 요구하며 첼시 매닝으로 개명했습니다.

2013년 8월 21일, 이등병이었던 첼시 매닝은 **미국정부의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3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밀문서에는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가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발생한 민간인 공격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국제법을 위반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첼시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전쟁범죄를 고발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주둔과 전쟁의 대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첼시는 자신을 변호할 증거와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동기를 제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군 당국은 간첩법 위반 등 20개가 넘는 혐의로 첼시에게 35년형이라는 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 정부의 범죄를 폭로하려는 내부고발자들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첼시 매닝을 위해 지금 편지를 써주세요!

미국 대통령은 첼시 매닝에게 관용을 베풀고 즉각 석방하라. 또 알 권리가 있는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내부고발자들을 불공평하게 기소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들을 보호하라.

* 탄원엽서의 영문편지는 배경정보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